

다니엘서 - 82번

예언의 수수께끼를 풀다: 다니엘서 11장의 역사와 재림교회에서 '상번제'가 지니는 의의

Jeff Pippenger
2024-02-15

재림주의의 네 세대를 대표하는 에스겔 8장의 네 가지 가증한 일을 배경으로, 1863년부터 1989년 '끝의 때'까지의 역사를 검토한 후, 우리는 1989년에 봉인이 풀린 지식의 증가로 주의를 돌릴 것이다. 그 지식의 증가는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관한 것이었다. 1989년에 우리의 작은 안식일 공부 모임은 Future for America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예언의 개혁선들을 발견했으며, 이것들은 모든 개혁선에서 사건들의 순서를 확립하고, 그에 따라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이 '줄 위에 줄'이라는 늦은 비 방법론을 적용하도록 해 준다.

몇 년 지나지 않아(1992년), 나는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을 다룬 논문을 썼다. 그 논문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쓴 것으로, 그 연구를 공개적으로 배포할 능력도 의도도 없었다. 1994년쯤에는 그 논문이 어느 재림교회 자립 선교 단체에까지 전해졌고, 1995년에는 그 단체가 발행하는 월간지에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을 다루는 열한 편의 연재 기사로 출판되었다. 예언의 신의 저술들에는 다니엘 11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몇 개밖에 없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절들에 관해 제시한 적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심 논거가 되었다.

우리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앞에는 환난의 때가 놓여 있다. 세상은 전쟁의 기운으로 들끓고 있다. 머지않아 예언들에서 말한 환난의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30절에는 어떤 권세가 '낙심하게 되리라'고 말한다. [다니엘 11:30-36 인용.]

"이 말들이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들이 벌어질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번호 13, 394.

화이트 자매는 1798년이 '끝의 때'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끝의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4. ... 1798년 이래로 다니엘서는 봉함이 풀렸고, 예언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가깝다는 엄숙한 메시지를 선포해 왔다." The Great Controversy, 356.

다니엘서 11장 40절은 '그리고 마지막 때에.'로 시작한다.

마지막 때에 남쪽의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며, 북쪽의 왕은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바람처럼 그를 치러 올 것이다. 그는 여러 나라에 들어가 홍수처럼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다니엘 11:40.

예언의 신의 직접적인 인준이 없더라도, 40절이 1798년에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의 출발점을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사건들은 인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로 이어지는데, 이는 다니엘서 12장 1절이 "그 때에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화잇 자매가 미가엘이 일어설 때 인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으리라. 그때에 네 백성, 곧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 12:1.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칠 때, 자비는 더 이상 죄 많은 세상의 거민들을 위하여 간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일을 마쳤다. 그들은 '늦은 비', '주 앞에서 오는 소성'을 받았고, 앞에 놓인 시험의 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오간다. 땅에서 돌아온 한 천사가 자신의 일이 끝났다고 알리니, 최종 시험이 세상에 임하였고, 신성한 법도에 충성됨을 입증한 모든 이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를 그치신다. 그분은 손을 드시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분이 엄숙히 선포하실 때 모든 천군은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불의한 자는 여전히 불의하게 하라,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럽게 하라,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롭게 하라, 거룩한 자는 여전히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 각 사람의 운명이 생명인지 사망인지가 결정되었다. 대쟁투, 613.

다니엘 11장 40절은 1798년에 시작된다. 그리고 45절에서 북방 왕(교황권)이 도와줄 자 없이 그의 끝에 이를 때 인류를 위한 은혜의 문이 닫힌다. 이는 다음 절이 '그 때에'라고 말함으로써 앞 절, 곧 다니엘 11장 45절에서 말한 '때'를 지칭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방 왕(교황권)은 인류를 위한 은혜의 문이 닫힐 때 그 끝에 이른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역사는 1798년에 시작되어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 끝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제시한다. 화이트 자매가 살아 있을 때 1798년은 분명 그녀의 과거에 속했다. 그녀가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가리킬 수 있는 것은 1798년 이후이면서 미가엘이 일어서기 전 사이에 일어나는 역사뿐이었다. 이어 그녀는 "이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역사가운데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며,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는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역사가 다니엘 11장에 제시된 다른 역사 부분들 속에서 이미 예표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그녀가 그 가장 중요한 예언의 열쇠를 강조한 다음, 이어 30절부터 36절을 인용하며 "이 말씀들에 묘사된 것과 유사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한다. 영감은 다니엘서 11장의 최종 성취를 이해하고자 하는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열쇠를 제공했다. 그 열쇠는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역사가 30절부터 36절에 나타난 역사와 병행된다는 것이었다. 이 계시로부터 풍성한 빛이 나오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매일'이 제거된다는 점이다.

인류의 유예 기간의 종결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연속을 보여 주는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언 연구자는 "the daily"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31절이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이 제거되는 것을 가리키든, 이교가 제거되는 것을 가리키든, 화이트 자매가 "이 말들에 묘사된 것과 유사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썼을 때 언급한 그 병행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the daily"의 바른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물론,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운동은 다니엘 11장 40절의 성취가 1989년 소련의 붕괴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절은 바로 그 사건들을 지목하고 있다. 1989년에 40절이 성취되면서 도래한 예언적 지식의 증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한 이들에게는, 그때 '상변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현재의 진리가 되었다. 20세기 초에 그 바른 이해는 중요했는데, 그것이 주께서 윌리엄 밀러를 사용하여 정립하신 기초 진리들의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첫 15년 동안, 'the daily'가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사탄적인 개신교적 견해는 소수 입장이었고, 'the daily'가 이교의 상징이라는 진리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도록 내버려 둘 가치도 없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에게서 "'the daily'라는 주제는 시험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거나 "'the daily'의 주제는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이 이 특정한 논의에서 배우지 못한 이들을 이끌 때마다 항상 빠뜨리는 것은, 이 주제에 대해 영감이 늘 붙여 두었던 단서이다. 다음 구절은 해스켈 장로를 향한 것이다.

해스켈 장로는 20세기 첫 두 10년대에 프레스콧과 대니얼스의 공격에 맞서 "the daily"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변호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었다. 주의 깊게 살펴보라. 화이트 자매는 해스켈의 "the daily"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고 결코 지적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논란이 계속되지 않게 하라고 그에게 지시했을 뿐인데, 이는 주께서 진리의 대적들(프레스콧과 대니얼스)이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지속적인 발판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해당 본문에서 해스켈은 "그 도표" 때문에 책망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표는 1843년 도표이다. 해스켈은 그 논쟁에서 증거로 삼기 위해 1843년 도표를 재제작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것을 재제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표 하단에 화이트 자매의 다음 진술을 실었다. "1843년 도표는 주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으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그 본문을 읽을 때, 그녀가 "at this time"이라고 말하는 횡수를 세어 보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리뷰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할 만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 . 우리는 지금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지만, 마음과 삶의 참된 회심을 위해 주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과 정신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 단호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단합된 입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주의를 받아왔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나는 프레스콧 장로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의 과거 경험의 결함을 지적하는 듯한 주제들을 '리뷰'에서 다루지 않도록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에게 그가 실수가 있었다고 믿는 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며, 지금 그것을 부각하면 우리의 적들이 이를 이용해 침소봉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신에게도 또한 말합니다. 이 주제 [다니엘 8장의 '매일의 것'의 정체성]은 지금은 논란이 되게 해서 안 됩니다. 아니요, 형제여, 우리의 경험에 있어 이 위기의 때에는 당신이 다시 출판하게 한 그 도표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당신은 이 일에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혼란을 일으킬 쟁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단호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 목회자들이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크게 이용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어느 쪽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지금은 침묵이 곧 웅변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지도적인 목회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여 이 문제에 관해 합의에 이르기 전에 그 도표를 출판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의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주제를 전면내 내세운 것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억지로 끼워 맞춰져 결국 대의에 해가 되는 의미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 증언하기를 서슴지 않겠다는 태도를 이미 드러낸 이들이 내놓는 허위 진술들을 상대하기에도 벅합니다." 원고 발표집, 9권, 106, 107.

이전 글에서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심판의 때의 외침'을 전한 이들은 'the daily'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the daily'가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뜻한다는 프레스콧과 다니엘스의 견해는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논쟁이 계속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해스켈을 꾸짖었지만, 'the daily'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진리에 관한 그의 입장 자체를 꾸짖은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 다수는 여전히 'the daily'에 대한 개척자들의 이해를 믿고 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1989년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릴 다니엘서 11장의 그 구절이 아직 수십 년 뒤의 일이었다. 그때(1989년)에는 'the daily'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필수적이 될 것이었다. 수정주의자들은 언제나 특정 시기에 한정되었던 엘렌 화이트의 단서들을 자신들의 꾸며낸 이야기에서 빼놓는다. 다음 구절에서 시간적 한정을 세어 보라.

나는 Butler, Loughborough, Haskell, Smith, Gilbert, Daniells, Prescott 형제들과, 다니엘 8장의 'the daily'의 의미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모든 이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문제를 시험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되며, 그렇게 취급한 결과 빛어진 동요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었고, 우리 형제들 중 일부는 주께서 이때 우리 도시들에서 하라고 지시하신 그 일에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사려 깊은 숙고에서 마음이 벗어났다. 이는 우리 사업의 큰 원수를 기쁘게 하였다.

내게 주어진 빛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키우는 어떤 일도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우리의 담론에 끌어들여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며 길게 논하지 말자. 우리 앞에는 중대한 과업이 놓여 있으며, 해야 할 본질적인 일에서 한 시간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우리의 공적 노력은 우리가 분명한 빛을 받은 진리의 중요한 측면들을 제시하는 데 한정하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에 여러분의 주의를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함 속에 아름답은, 거룩하고 시험이 되는 진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큰 진지함과 열성을 가지고 깊이 다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제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the daily'나 그 밖의 어떤 주제도 끌어들이지 맙시다. 이는 주께서 바로 지금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일을 지연시키고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의견 차이를 드러낼 문제들을 쟁점화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구속력 있는 요구들에 관한 거룩한 진리들을 가져와 제시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진리를 가장 호소력 있게 제시하도록 힘써야 한다. 가능한 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라. 설교는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대한 주제들을 다루게 하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를 낮출 필요성을 깨달을 때, 그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실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회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협력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이들의 마음에 거룩한 감화를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일치의 결속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끈을 고르게 잡아당기고, 다툼이 끼어들지 않게 하라. 진리의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줄 것이다. 연합에는 힘이 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차이점을 부각할 때가 아니다. 주님과 살아 있는 굳건한 관계를 갖지 못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신앙 경험의 연약함을 세상에 드러낸다면, 우리를 면밀히 주시하는 진리의 원수들이 그것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고, 우리의 사역은 방해될 것이다. 모두가 온유함을 기르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게서 교훈을 배우자.

'the daily'라는 주제는 그동안 벌어진 것과 같은 움직임에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주제가 이 문제의 찬반 양측 사람들에 의해 다루어져 온 방식의 결과로 논란이 일어났고 혼란이 초래되었다.

래리 스미스 형제가 자신의 형제들과 그들의 신앙을 정죄하는 소책자를 출판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프레스콧 장로에게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 문제에 관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셨다.

우리 지도자 형제들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해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면서도, 대니얼스 장로가 몇몇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다른 이들은 지혜의 인도를 받지 못했고, 'the daily'의 해석에 관한 자기 견해를 옹호하려는 노력의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를 따라 분명히 추론하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갈려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것을 부각시키지 말라. 모든 논쟁을 그치라. 이러한 때에는 침묵이 웅변이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는 그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들로서 대도시의 주민들에게 그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해야 한다." 소책자 제20호, 11, 12.

그녀가 언급했던 래리 스미스 형제는 이 상황에 특히 격분했는데, 프레스콧과 대니얼스가 그의 아버지가 "the daily"에 관해 쓴 내용을 바꾸기 위해 그의 아버지의 책 『다니엘과 계시록』을 다시 쓰고자 했기 때문이다. 스미스 형제는 진리와 그의 아버지를 옹호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차례 "현 시점에서"라는 말로 이 논쟁을 한정하고, 끝부분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부각시키지 말라."고 말한다. 오늘날 "the daily"를 가르치는 재림주의의 모든 대학교들은 사탄적인 견해를 가르치고 있다. 오늘날의 상황은 그때와 분명히 같지 않다.

재림주의의 제2세대는 1888년의 반역에서 시작되었고, 지도부 안에서 심령주의가 자리잡았다. 그러한 상황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자들이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무엇이든지 추진하기로 작정함에 따라, 소외와 분열의 분위기를 초래할 더 큰 심령주의적 미혹이 진전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다. 대니엘스, 프레스콧, 켈로그와 같은 사람들은 에스겔이 지적한 역사, 곧 칠십 장로, "이스라엘 집의 장로들"이 "어두운 데서, 각 사람이 자기 상상의 방에서 행한다. 그들은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한다"고 한 그 역사의 상징이 되었다.

그 세대에 1888년 기별의 두 사자는, 성전의 벽과 그들의 마음의 벽에 우상들을 그려 놓았던 에스겔의 칠십 명의 장로들을 삼켜 버렸던 논쟁과 혼란과 심령주의 속에서 길을 잃었다. 켈로그의 심령주의로 인해 건강 사업은 제거되었고, 그럼에도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수정주의자들은 배우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그 세대의 혼란 속에서 어떤 종류의 승리가 나왔다고 믿게 한다. 사사 시대에도 병행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사사들의 역사의 총괄이 이 기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이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21:25.

이 글들을 이어가며 왜 사사기의 역사가 재림주의 제2세대의 역사와 상응하는지를 보여 주겠지만,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역사를 고려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 서술은 역사 수정주의를 행하는 이들에 의해 제공되어 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화이트 자매는 그 역사 속에서 'the daily'라는 주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녀가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들'에게 인도되고 있다고 말했던 소수의 남성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퍼뜨리도록 공적 무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이트 자매가 오류를 유지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지지한 적이 있다고 암시하는 것은 그녀가 믿었던 바와 정반대이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류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화시키지 못하며, 항상 혼란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기도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지 않고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않은 마음들에 대해 원수는 큰 권세를 행사합니다." 증언, 5권, 292쪽.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잃을 수 없다. 우리 앞에는 환난의 때가 놓여 있다. 세상은 전쟁의 영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머지않아 예언에 말한 환난의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 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던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30절에는 한 권세에 대하여 '그가 근심하고 돌아와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하리니, 그가 그렇게 행할 것이요, 그는 다시 돌아와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내통하리라.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건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항상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언약을 거스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는 아침으로 부패시키려니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담대히 행하리라.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은 칼과 불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여러 날 넘어지리라. 그들이 넘어질 때에 조금의 도움을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아침으로 그들에게 가담하리라. 지혜 있는 자들 중 몇 사람이 넘어질 것이니, 이는 그들을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려 함이며, 끝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때가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신을 크게 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놀라운 말을 하며, 진노가 마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이미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0-36.

이 말들이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이 빠르게 장악해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모두가 이 책의 예언을 읽고 이해하라. 우리는 지금 언급된 환난의 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에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나라가 생긴 이래 그 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으리라.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 많은 이가 깨어나되,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멸시로 나아가리라.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세세무궁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나 너는, 오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종말의 때까지 봉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다니엘 12:1-4. 원고 발표집, 13호, 394.